

Issue Comment

- ✓ 955 억원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시설 투자 공시
- ✓ 이번 투자를 통한 연간 테스트 매출 기여는 200~250 억원
- ✓ 테스트 매출액 증가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

엘비세미콘 (061970): 955 억원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시설 투자 공시

엘비세미콘 (061970)은 9월 28일 955 억원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시설 투자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양수도 금액이 포함된 개념이며, 기존 임차로 사용하던 안성 공장의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순수 테스트 설비 투자 금액은 700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존 비메모리 테스트 아이টে이었던 DDI (Display Driver IC), CIS (CMOS Image Sensor)와 더불어 AP (Application Processor), PMIC (Power Management IC)테스트에 대한 증 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력 거래선의 스마트폰 내 엑시노스 채용 비중의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테스트 설비 투자 금액 과 정상 가동률을 가정하면, 이번 투자를 통한 연간 테스트 매출 기여는 200~250 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설비들은 2Q21 부터 가동되며 본격적 매출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엘비세미콘이 DDI, PMIC Pkg.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아이টে이들은 통상 테스트, 패키징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이번 테스트 설비 투자는 Pkg. 사업 매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주력거래선향 PMIC 테스트, 패키징 사업이 2020년 하반기부터 부진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를 통해 테스트 사업과 더불어 WLP (Wafer Level Pkg.) 사업에 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3Q21 연결실적은 매출액 1,338 억원 (+10% QoQ), 영업이익 148 억원 (+20% QoQ)으로 예상된다. 주력아이টে이인 DDI의 경 우 12 인치는 다소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8 인치 호조와 CIS 가동률 증가, 우호적 환율 상황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기 존 비메모리 테스트 설비는 7월 이후 모두 반입되어 정상 가동 중이다. 4Q21 부터는 DDI 12 인치 물량의 회복과 이번 테스트 신 규 설비가 반입되기 시작하며 2022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800 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은 2021년 1,168 억원 수준 (별도 매출액 중 43%)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2020년 신규투자 분의 온기 반영과 이번 신규 투자분이 반영되며 1,500 원 수준 (별도 매출액 중 46%)으로 증가하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